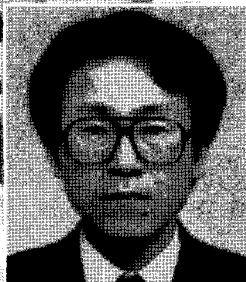


신고한 농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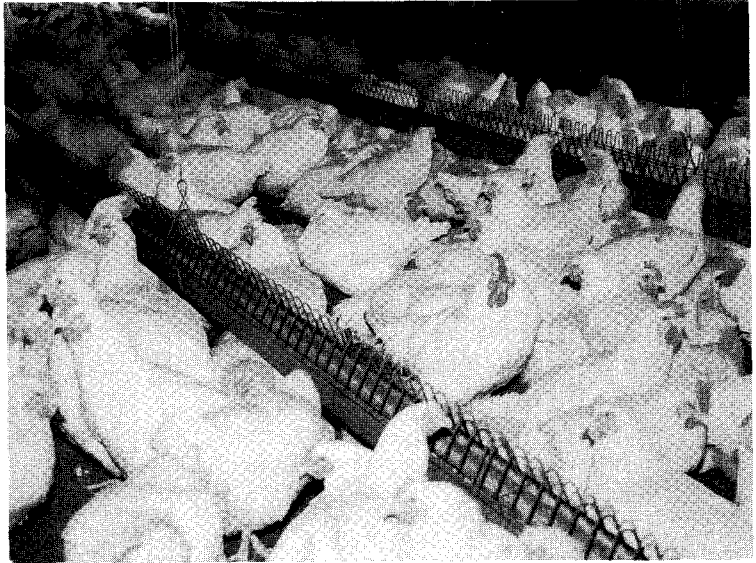
윤 호 식
(정원동물병원 원장)

최 근 2개월 동안 양계업계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고 있다. 언론매체나 국민의 관심을 한번에 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보전에 양계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느끼며 우리는 걱정과 고통속에서 보내왔다. 각종 잡지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국내 발병상황을 짚어보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중 농가에서 숙지해야 하고 최소한 지켜져야 할 소독방법 및 관련된 홍보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국내의 발병 상황

국내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최초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PAI)가 발생되어 현재 양계농가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1996년도 화성에서 처음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9N2)가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 약병원성 인플루엔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매년 발병하고 있어 왔으며 특히 2001년 6월에는 중국산 수입 오리육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5N1)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중국산 가금육을 수입중단한 바 있었고 당시의 보도자료에 WHO 발표에 의하면 사람의 건강에는 해가 없다고 하여 국민을 안심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생에서는 언론의 지나친 보도와 방역과 위생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이 함께 다뤄져 양계산물의 심각한 소비위축을 가져와 산업이 마비될 지경이 되었다. 국내에서 방역상황을 검토해보자면 2월 5일 현재까지 총 18개 농장에서 양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최초 발생이후 2개월이 경과된 상황이다.



2003년도 네델란드의 발병사례에서는 첫 발생(H7N7)이후 2개월만에 230여건이 발생보고된 것 하나만 비교해보자. 이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앞으로의 전개상황을 알 수는 없겠지만 방역당국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리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추후 양계산업에 미칠 파장을 미리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생 사실 보고에만 신경써 국민의 과잉소비 위축을 가져와 양계업계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최초 발생이후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농장 관리자나 관련자 등에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미국의 질병방제센터의 보고대로 동남아국가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는 다르다고 하므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

더구나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위생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에서는 아직도 시장에서 생닭이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의 닭고기 유통은 안심할만큼 높은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농가의 주변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므로 바이러스

에 노출된 닭고기가 시장에 나올 염려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어 정상적으로 유통된 닭고기는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방역신고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더욱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초로 금번 질병에 대하여 신고한 종계장의 경우는 피해가 너무 크며 보상은 미미하여 축주는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역학조사결과 오히려 원발 농장이 오리농장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피해만 입은 최초 신고농장은 억울한 입장이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이외에 뉴캐슬병(N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질병발생 신고를 하여 ND로 진단된 농장에는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적어도 신고한 농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질병퇴치가 가능

할 것이다. 신고로 인해 농장에 피해가 있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질병이 발생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고한 농장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질병이 방역당국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규는 법대로 따라하면 농가가 간섭이나 제한만 받고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많으며 그렇게 느껴지는 한 가축전염병에서 정의된 법정전염병의 퇴치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종 법정전염병인 ND와 HPAI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는 계란유통, 난 좌, 계분, 접종인력 이동, 생계운반차량(육계, 중추, 노계) 등에 대하여 더욱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특히 정부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생산자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법적으로 제도만 만들어 생산자가 지킬 것을 강요하는데 이는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이루어져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축산구조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혁신적이고 생산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 정책이 있기를 기대한다.

알기쉬운 가금인플루엔자 관련 문답풀이

【문1】 가금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이고,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가금인플루엔자는 닭 · 칠면조 · 오리 · 야생조류 등 여러종류의 조류에 감염되고,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 약병원성 · 비병원성으로 구분하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주요증상〉

- 닭의 경우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닭이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사료섭취가 감소되고, 육수나 벼슬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의 급격한 폐사 등을 나타냄
- 오리의 경우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을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고, 육용 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음

【문2】 가금인플루엔자의 전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 농장간 또는 계사간 전파는 주로 오염된 먼지 · 물 ·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 차량 · 기구 및 장비 · 달걀 등에 묻어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어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하므로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문3】 가금인플루엔자는 치료방법이나 예방약은 없는가?

- 가금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음

- 또한,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135가지)하고, 각각의 혈청형은 서로 교차면역이 되지 않거나 약하여 다른 혈청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변이가 잘 되어 효과적인 예방약이 전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양계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중요한 예방 수단임

[문4] 효과적인 소독제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소독실시 요령은?

-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주요 가축질병(가금인플루엔자)”에 관련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조사의 용법·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 발생지역의 3km내에 있는 위험지역 소재 양계농가에서는 1일 2회 이상, 3~10km사이의 경계지역 소재 양계농가에서는 1일 1회 이상, 비발생지역에서도 계사 내·외부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축주 및 관리인 등 종사자는 반드시 외출후 귀가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 계사에 출입하여야 함
-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는 닭(오리) 운반차

량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문5] 이번에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는 사람한테도 감염되는가?

- 이번에 국내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확인되었음
- 사람에게 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국립보건원에서 미국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1개월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며,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추정됨
- '03. 12. 18일 현재 발생지역 주민한테서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음
- '97년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 최초의 사례이고 감염된 생닭을 취급한 작업자의 기관지를 통해 감염된 것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음

[문6]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는지?

-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뿐만아니라 3km 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km사이의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됨
- 홍콩 등 외국의 경우에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달걀 섭취로 인한 발생보고가 없음
-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상 날로 먹지 않고 전부 익혀서 먹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됨.

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농가의 속지사항

제 품 명	주성분 및 분량(g/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알데히드제제> ○ 킨사이드 ○ 태고도르 73 ○ 터미네이터 ○ 티 에이치4 플러스 ○ 글루타-에프 ○ 네부롤 ○ 디씨엔알 ○ 라이프라인-지에이 ○ 메디사이드 ○ 브롤가드 ○ 바라싸이드 ○ 바이렉스 200 ○ 바이제로 ○ 바이크린 ○ 섀사인-SF ○ 슈퍼글루 ○ 에프엠 킵 ○ 울바이-지큐 ○ 울사이드 ○ 울니싸이드 ○ 울니졸 ○ 울트 라울비벨 ○ 유한글루타알데히드 ○ 지피씨8 ○ 팜블럭 ○ 팜키퍼-1 ○ 퍼펙트존 ○ 한풍 글루드엑 ○ 허튼 비루사어달 ○ 알데시드 ○ 하이프렐바 SF ○ 살모제로 액상	(G=글루타알데히드, F=포르말린) G 150 G 50, F 75 G 150 G 63 등 G 100 G 75 F 23 등 G 100 G 150 등 G 200 등 G 100 G 65 G(50%) 150, F(35%) 258 G(50%) 200 G(10%) 150, F(10%) 180 G 100 G(50%) 200, F(35%) 30 G 150 등 G(50%) 300 등 G 150 등 G 100 G 110, F 66 G 100 G 120 G 200 G 100 G 100 G 100 G 75 G 100 G 130g 등 F 300	대한뉴팜 이화팜텍 이글벳 바이오베트 삼우메디안 메리알코리아 동방 고려비엔피 민우 대성미생물 중앙바이오텍 누리벳 코파벤스페셜 코파벤스페셜 장백베트랩 신일화학 성원 한동 동화축산 세링푸라우코리아 녹십자수의약품 이화팜텍 유한양행 한국화이자 한국미생물연구소 동부한농화학 다원케이칼 한풍산업 대호 남전물산 대동신약 대호	※ 사람에게 사용금지
<포르말린제제> ○ 케이세븐 ○ 줌마스타	파라포르말린 245g/700g 파라포르말린 370g/kg	신한바이오캡 서일베트	<공통> 전기 기기
<계면활성제> ○ 벤코솔 ○ 라이소탄 ○ 벤잘크린 ○ 파워크린 ○ 케이제이벤잘코놀 ○ 팀센 ○ 아스토프 ○ 팜세이프 ○ 슈퍼-스름 ○ 날닥크 ○ 로알크린 ○ 프리존 ○ 부롬실투10%액 ○ 부롬실투50%액 ○ 부롬실투5%액 ○ 팜가드 ○ 울스름 ○ 파폼에이 ○ 에이-플러스 ○ 가드울-슈퍼 ○ 크린아킬 ○ 뉴파고솔 ○ 허튼ODC 10 ○ 크린엘 ○ 저맥스에스 ○ 바이오센트리 피.에프.디-6 ○ 씨치원 ○ 라스트엑스 ○ CFP크리너 ○ 네오텍 ○ 비티씨-에이 ○ 아그리메이저 ○ 인포스 ○ 파스텐	Benzalkonium chloride 200 " 250 " 100 " 200 " 100 " 400 Didecylmethylamm. chloride 100 " 50 " 100 Octyldecylmethyl amm. chloride 50 등 Octyldecylmethyl amm. chloride 30 등 Didecylmethylamm. chloride 100 Didecylmethylamm. bromide 100 " 500 " 50 Alkylmethylbenzylamm. chloride 100 Didecylmethylamm. chloride 100 Octyldecylmethyl amm. chloride 22.5 등 Didecylmethylamm. chloride 100 Alkylbenzylmethylamm. chloride 32 등 Didecylmethylamm. chloride 100 Octyldecylmethyl amm. chloride 50 등 Didecylmethylamm. chloride 100 Didecylmethylamm. chloride 125 Alkylmethylbenzylamm. chloride 100 Quaternary amm. chloride 230 등 복합4급 암모늄화합물 100 등 " 56.2 등 " 50 등 " 56.2 등 " 56.25 등 Lauryldimethyl benzylamm. chloride 20 등 Didecylmethylamm. chloride 50 Alkylpoly-amino-ethylglycine HCl 35g 등	중앙백신연구소 이화팜텍 에스에프 에스에프 한국섬네티 씨에이씨 유한양행 우성양행 신일화학 고려비엔피 고려비엔피 삼양약화학 대성미생물 대성미생물 대성미생물 성원 성원 삼우메디안 삼우메디안 한풍산업 한풍산업 대성미생물 대호 오창무역 바이엘코리아 신한바이오캡 한성바이오캡 한성바이오캡 한성바이오캡 케미텍인터내셔널 시흥용사존안용합성 화성동물약품 이엘티사이언스 녹십자수의약품	<공통> 계사, 시설, 속소, 기 계, 차량, 의복

※ 상기 품목에 대한 정확한 용법·용량, 적용대상 및 그에 따른 회석비율은 반드시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시거나 제조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